

‘태풍 북상’ 마스터즈대회 안전 강화

방송센터 몽골텐트 철거·문화행사 연기 등 검토 조직위 “사고대비 철저히...9호 태풍도 예의주시”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광주세계수영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에 나섰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용섭 광주시장, 이하 ‘조

직위’)는 태풍 ‘프란시스코’가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종 시설물을 이동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취했다.

조직위는 우선 국제방송센터 부지 몽골텐트 6동을 철거하고, 각 경기장 선수이

동동선에 있는 몽골텐트 51동 칸막이도 제거했다.

선수과 관람객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기에 위해 조성된 남부대 마켓스트리트도 기상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휴게 파라솔과 배너 등 각종 강풍 취약시설을 이동해 보관 조치한다.

또 각 홍보관 주변 빗물 배수상태와 경기장 전기공급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야외에서 열리는 각종 문화행사는 현장상황에 따라 연기 또는 취소하기로 했다.

태풍에 근접해 있는 여수 오픈워터수영 경기장은 출발대(해상풍문)에 4개의 덮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관람석 기립막과 각종 환경장식물은 강풍의 세기에 따라 철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이번 8호 태풍이 경기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안전사고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중형급 태풍인 9호 ‘레기마’에 대한 예상경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도, 일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방세 지원 기한연장·징수유예·세무조사 연기 등 ‘적극행정’

전남도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6일 시·군 세정과장 회의를 긴급 개최해 예상되는 피해기업 등에 대한 피해 완화 및 최소화를 위해 지방세 지원을 강화하는 ‘적극행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취득세 등 신고세목에 대한 기한연장, 재산세 등의 부과 또는 부과 후 징수기한 연장, 하반기 세무조사 대상 기업 등에 대한 조사 연기 등이다.

지방세 지원대상은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농수축산 법인 등이다. 연장 및 유예기한은 최대 1년이다. 지원은 해당 기업이 시·군 및 도에 지원요청

을 하면 검토·결정·통보 순으로 이뤄진다. 필요시 직권으로 처리할 계획도 함께 구상 중이다.

도는 피해기업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군 및 지역상공회의소 등과 연계해 긴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본청과 22개 시·군 세무부서에 피해기업 지원 T/F팀을 구성해 지원내용을 안내하는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장오 전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수출규제로 전남지역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전남도 실국장 정책회의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6일 오전 도청 서재파일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채용·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예산낭비도 심각 전남도 산하기관 비리·부정행위 ‘백태’

전남도 주요 산하기관들의 비리와 부정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또 일부 기관은 수십억원대 장비를 구입하고도 전혀 활용하지 않는 등 예산낭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전남도는 녹색에너지연구원과 전남환경산업진흥원·전남테크노파크 등 산하기관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전남환경산업진흥원은 지난 2015년 45억원 상당의 오염저감 성능시험시설을 설치했지만, 단 한 차례도 활용하지 않았다. 또 화환·화분, 축·부익 등 부적정한 업무추진비 집행을 일삼아 왔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연구원 인사관리 규정’을 어기고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시켰다가 적발됐다. /김영민 기자

전남테크노파크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4명의 직원 부양가족에게 134만원의 가족수당을 부당 지급했다. 이밖에도 외자장비를 사면서 학술연구용으로 신고해 관세 7억1,800만원을 면제 받았지만, 기업에서 의뢰한 단순 시험분석용으로 사용돼 면제받았던 관세와 벌금 1,320만원을 납부하는 등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부적정행위 33건과 관련된 8명에 대해 신분상조치하고, 2,252만원의 회수·추징 조치 명령을 내렸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처벌할 계획이다”며 “산하기관에 대한 취약분야관리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광주 상무소각장 문화재생으로 ‘랜드마크화’

시, 문체부 ‘유휴공간 연구지원사업’ 공모 선정

광주 상무소각장이 문화적 재생사업을 통해 랜드마크로서 재탄생할 전망이다.

광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한 ‘2019 유휴공간 문화재생 기본계획수립 연구지원 대상지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고 6일 밝혔다.

문체부는 보존가치가 높고 문화재생 잠재력을 가진 유휴공간을 발굴해 문화재생 사업효과를 높이고자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226개 기초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했다.

광주시는 주민 집단민원으로 2016년 12월 가동 중지된 이후 방치된 상무소각장 내 공장동을 대상으로 응모했다.

상무소각장은 1km 이내에 광주시청·김대중컨벤션센터 등 주요시설이 있고,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와 상업지역이 위치

해 유동인구가 많은 데다 남북축으로 광주전과 공원이 위치해 환경성이 풍부한 점 등이 높이 평가됐다.

문체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은 내년 1월까지 문화재생 사업성, 방향 설정, 공간운영과 활용계획안 도출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를 국비로 진행한다.

시는 기본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상무소각장 공간특성을 살린 활용계획안을 도출해 리모델링 계획을 마련한 후 국비신청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향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이번 공모에서 절거위기에 놓인 상무소각장의 가치와 광주시의 소통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광주시의 랜드마크로서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공공형어린이집 2곳 신규 선정

시, 20일까지 접수

광주시는 공보육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 2곳을 추가로 선정한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공보육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 95곳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 중 평가인정 A등급 이상, 정원 충족률 80% 이상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개방성과 운영·안정성 등 3개 분야를 심사해 선정할 예정이다.

20일까지 보육통합지원시스템에서 접수하며,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등을 거쳐 9월 말 발표한다.

공공형 어린이집에 선정되면 어린이집 교사, 반 수, 아동 현원 등을 반영해 보육교사 급여, 교육환경 개선비 등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보육교사 인건비는 국공립 1호봉 수준으로 책정되고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와 동일한 지원을 받는다.

한편, 광주시는 공보육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24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확보해 국공립 전환을 추진 중이다.

곽현미 광주시 여성가족정책관은 “공공형 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해 공보육을 더욱 확대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시, 삼거동 일대 농산물 ‘방사능’ 검사

월 1회...결과 홈페이지 공개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매월 1회 광주에서 한빛원전과 가장 인접한 광산구 삼거동 일대 농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한빛원전 격납건물의 구조적 안전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방사능 누출 등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고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이다.

방사능 오염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

는 요오드(I)-131, 세슘(Cs)-134, 세슘(Cs)-137 등 3개 항목을 검사하며, 결과는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hevi.gwangju.go.kr)에 공개할 방침이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14년 방사능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대형마트, 재래·도매시장, 학교 등에서 유통하는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등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 중이다.

그동안 1,875건의 검사에서 방사능은 검출되지 않았다. /황애란 기자

투자 하실분

- ▶ 입찰할/낙찰된 경매물건
- ▶ 엔피엘(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 현금 3억원이상, 법적 보장

(주)오천경매.010-3605-5000

전남매일 연중 일자리 창출 캠페인

서구일자리센터 JobCafe

청춘발산 공작소

모든 혜택이 공짜인 Job cafe에서 내일잡(Job)고 내 꿈을 키워보아요~

상무대로 | 삼익면선 | 금호월드 | 신세계백화점 | 무진대로

죽봉대로 | 농성역 | 화정중흥파크 | 청춘발산 공작소 | 교원공제회관 | 죽봉대로

수안12/지한25/금호36/영신37
문흥39/승암68/승암72/1187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업상담사가 제공하는 청년 맞춤형 구직 정보

노동·법률·심리 등 분야별 전문상담

커피한잔, 독서한권, 웹서핑, 명태리기 등 맘껏 힐링가능

청년 취·창업 공간제공 (회의실·스터디룸)

NCS 직무교육, 면접클리닉, 취업박람회 등 Job Conference

서구 내방로 392(한국자산관리공사 별관 1층)
Tel: 062-369-8061~2 Fax: 062-369-8060